

## 通訳案内士試験道場 韓国語模試⑤ 解答例

### 問題1 次の韓国語を和訳しなさい

①“부장군”으로써의 지위를 감추고 몰래 충실한 부하들과 함께 “암행”을 하여, 각지의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밝혀내는 권선징악의 스토리.

副将軍の地位を隠し、忠実な連れの者たちとともに隠密で/こっそり/お忍びで各地の実情を調べ、汚職だらけの悪代官の不正腐敗などを暴く勸善懲惡の物語

②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오열을 참으며 희생자를 추도하면서 산더미처럼 쌓인 부서진 가옥과 시신 등의 뒤처리를 하고 있다.

九死に一生を得た人たちは泣き出したいのをこらえて犠牲者を追悼しながらも、山積みになった家屋のがれきや遺体などの後片付けをしている

③회는 비늘과 내장의 손질을 꼼꼼하고 능숙하게 처리하여 지나치게 가공하지 않는 일본요리의 철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요리이다.

刺身はウロコとはらわたの下処理を丁寧に、また手際よくし、手を加え過ぎないという和食の鉄則を表した代表的な料理だ。

④녹말가루를 얇게 골고루 묻혀,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건져내면 본래의 고기맛이 빠져나가지 않고 나중에 국물이 탁해지지 않는다.

片栗粉を薄くまんべんなくまぶし、沸騰した湯にさっとくぐらせて取り出すと、肉本来のうまみを逃さないし、後でだし汁がにごったりしない

⑤질긴 양고기를 못 먹었던 일본인들은 얇게 썬 쇠고기를 펄펄 끓는 육수 속에 살짝 담궜다가 양념장에 찍어 먹는 “샤브샤브”로 먹었다.

かたいマトンが食べられなかった日本人たちは牛肉の薄切りをぐらぐら（ぐつぐつ）わくだし汁のなかにさっとひたしてたれにつけて食べるしゃぶしゃぶにして食べた。

⑥저승사자가 찾아오면 불교식의 분향을 하고 스님이 불공을 드리는데 영결식에는 유교식으로 상주가 상을 치른다.

お迎えが来れば仏教式に焼香し、またお坊さんが供養してくれるが、告別式では儒教式に喪主が葬儀を執り行う。

⑦스님이 보시해달라고 탁발을 하는 것을 봤을 때도 모금활동인 줄 알았다.

お坊さんが布施を求めて托鉢するのを見たときも、てっきり募金活動だと思っていた。

⑧안감을 대지 않아 끈끈하지도 않은 옷, 그리고 맨발에 나막신을 신으면 화룡점정이다.

裏地を張らずべたべたしない/さらさらした浴衣、そして素足に下駄をはけば申し分ない(完璧だ)

⑨열대야로 밤잠을 설치는가 싶다가도, 9월이 되면 모기향도 다 바닥나고, 바다에는 해파리가 출몰하며, 매미 대신 여치와 귀뚜라미 노래가 들리기 시작된다. 熱帯夜で夜も寝苦しい/寝付けないとはいえ、九月になると蚊取り線香も底をつき、海にはクラゲがでて、蟬の代わりにキリギリスやコオロギの歌が聞こえだす。

⑩까치들이 까치밥을 다 먹고, 농가 처마끝에 달린 꽃감에도 흰 색 가루가 끼기 시작할 무렵이면, 진눈깨비와 싸락눈과 우박을 몰고 동장군이 찾아온다.

柿の木のてっぺんに残っていた最後の実もなくなり、農家の軒先につらされた干し柿も白い粉を吹き始めるころ、みぞれとあられ、ひょうを率いて冬将軍がやってくる。

## 問題2 次の日本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①悔しさをバネに、「今に見てろ」という気もち、それを忘れず奮い立つのだ。

억울함에 자극받아 “두고보라”는 마음으로 와신상담하여 분발하는 것이다.

②むやみに高いレベルの技を学ぶよりも、基本の型をしっかり学び、基礎をかためたらそれを状況に合わせてアレンジし、黒帯をとることができるのだ。

선불리 높은 수준의 기술을 배우기보다는 기본동작을 확실하게 배워 기초를 다진 후 그것을 상황에 따라 적용한 후 검은 색 띠를 따는 것이다

③生まれつきそうだったのか、彼は人の言うことなど意に介さず、仕事をしないでもっぱら茶道だけをしたので、三畳の狭い部屋で段ボール箱を机兼ちゃぶ台代わりにして、パンの耳をかじりながら暮らした。

천성이 그랬는지 그는 다른 사람의 말에는 개의치 않고 일도 안하고 오로지 다도만을 했기 때문에, 한 평반/5 m<sup>2</sup>의 좁은 방에서 라면박스를 책상 겸 밥상으로 대신하고, 빵가장자리를 먹으면서 생활했다.

④京都の人はものもいよいよ角が立つことをわかっているので、言いづらいことはずけずけ言わずに語尾を濁し、遠まわしに言う場合が多い。

교토 사람들은 같은 말도 말하기에 따라 모가 난다는 걸 아니까, 말하기 거북하면 무턱대고 말하기 보다는 말끝을 흐리거나 돌려/우회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다.

⑤赤ら顔に笑みを浮かべ料亭で雰囲気盛り上げつつ業務上の接待をする人や、「今日とはとことん飲もう！」と飲み放題の居酒屋に行って酒をがぶがぶ飲む人々もいるが、一方、家で夕食のおともに一二杯晩酌する人も多い。

상기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요정에서 분위기를 맞추면서 사업상 접대를 하는 사람이나 “오늘은 갈 데까지 가보자”고 무제한 마실 수 있는 술집에 가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한편 집에서 저녁식사에 곁들여 한두잔 반주를 하는 사람도 많다.

⑥粘り気があるもち米を蒸して臼にいれ、杵でついてもちを作る。

끈기가 많은 찹쌀을 찌서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어 떡을 만든다.

⑦心筋梗塞を防いでくれるイワシなどの青魚は足が速く、ある程度新鮮でなければ後味がさっぱりしない。

심근경색을 막아 주는 정어리 등의 등푸른 생선은 상하기 쉽고 웬만큼 신선하지 않으면 뒷맛이 개운하지 않다.

⑧東日本の雑煮は大てい角餅をキツネ色に焼いていれる。

일본동부 지방의 떡국은 대체로 네모난 떡을 노릇노릇하게 구워 넣는다.

⑨我慢に我慢をかさねたあげく来るんじゃなかったと後悔し始めた。

참느라고 참았는데, 마지막에는 괜히 왔다고 후회하기 시작했다.

⑩土用の丑の日には夏バテをしないようにあつあつのうな井を食べる習慣がある。

복날에는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타지 않도록 따끈따끈한 장어구이 덮밥을 먹는 습관이 있다.

### 問題③ 次の韓国語の単語を和訳しなさい

①팔방미인 多芸多才 (オールマイティ/マルチタレント)

②동에 번쩍, 서에 번쩍 神出鬼没

③살신성인 命に代えて도正義をなす

④새송이버섯 エリンギ

⑤팽이버섯 えのきだけ

⑥콩가루 黄な粉

⑦서낭나무 ご神木

- ⑧유부초밥 이なりずし
- ⑨돋보기 虫眼鏡/老眼鏡
- ⑩쇠뿔도 단김에 빼라 善は急げ/鉄は熱いうちに打て/思い立ったが吉日
- ⑪옷이 날개 馬子にも衣装
- ⑫헛기침 咳払い
- ⑬만우절 エープリルフール
- ⑭흘러간 노래 懷メロ
- ⑮연등회 灌仏会/花まつり
- ⑯제헌절 憲法記念日
- ⑰수국 紫陽花
- ⑱천둥 雷
- ⑲나팔꽃 朝顔
- ⑳참억새 스키

**問題 4 次の日本語の単語を韓国語に訳しなさい**

- ①まげ 상투머리
- ②關取 스모의 프로선수
- ③筆遣い 붓놀림
- ④腕立て伏せ 팔굽혀펴기 /푸치업
- ⑤英語ネイティブ 영어 원어민
- ⑥ホームシック 향수병
- ⑦住めば都 정들면 고향
- ⑧冠婚葬祭 관혼상제
- ⑨お持ち帰りサービス 포장해주는 서비스
- ⑩ヒラメ 광어/넙치
- ⑪お汁粉 팔죽
- ⑫木綿豆腐 부침용 두부
- ⑬しめ縄 금줄
- ⑭ご都合主義 아전인수
- ⑮耳学問 어깨너머 공부
- ⑯たくあん 단무지
- ⑰数の子 청어알
- ⑱選考試験 전형 시험
- ⑲織姫と彦星 견우와 직녀
- ⑳落葉広葉樹 낙엽활엽수

**問題 5 次の説明に該当する日本語の単語をひらがなで書きなさい**

- ①살코기 속에 조밀하게 지방이 들어간 최상의 쇠고기 しもふり
- ②춘분과 추분을 전후해 조상에게 공양을 드리는 일본고유의 풍습 ひがん
- ③신에게 봉납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본신화를 테마로 한 탈춤 かぐら
- ④그 지역을 지켜준다는 “서낭당”에 해당하는 신사 ちんじゅ/うじがみ
- ⑤스모도장에서 선수들이 날마다 먹는 전골 ちゃんこ
- ⑥나뭇판자로 만든 전통적인 라켓으로 제기를 치는 배드민턴같은 신년의 민속놀이  
はねつき

**問題 6 次の日本語の意味を韓国語で説明しなさい**

- ①化粧まわし스모선수들이 착용하는 앞치마같이 생긴 자수를 놓은 살바
- ②赤飯 경사스러운 날에 먹는 찰밥의 일종인 팔밥
- ③巫女 흰색의 상의와 붉은색 하의를 입은 젊은 무당
- ④鏡餅 신정때 신에게 바치는 크고 작은 두 개의 찰떡
- ⑤恵方巻き 2월 3일에 그 해의 운수가 좋다는 방향을 향해 통째로 먹는 큰 김밥
- ⑥百人一首  
짧은 시를 읊으면서 그 시의 후반구절이 써 있는 카드를 찾는 신년의 민속놀이

**問題 7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横綱の起源**

요코즈나를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기는 이유의 하나는 그 기원에 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 일본 땅은 이즈모의 오키니누시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늘에 사는 아마테라스가 그 땅을 양도하도록 천하장사를 사절로 나로보냈다. 막무가내로 그 요구를 거절한 오키니누시의 둘째 아들인 타케미나카타는 천하장사에게 온 힘을 다해 항거했다. 하지만 천하장사는 타케미나카타의 팔을 부러뜨렸기 때문에, 나가노현 수와로 도망쳐, 거기서 천하장사에게 목숨만은 살려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다. 그 결과 아마테라스가 일본 땅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모의 기원은 신화이며, 최초의 천하장사도 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①オオクニヌシは日本全土を譲り渡すよう出雲に力士を派遣し、交渉した。×
- ②タケミナカタは使節としてきた力士と戦ったが、諏訪まで逃げ、降伏した。○
- ③横綱を神聖な存在としてみる理由は、初の最強の力士が神だったからである。○

**問題 8**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武蔵丸**

하와이 출신의 한 청년이 입문한지 겨우 2년만에 프로인 “마에가시라(前頭)”라는 등급으로까지 승진하여 주목을 받은 것은 1991 년이었다. 동경 닛뽀리(日暮里)에 있던 무사시가와(武蔵川) 도장의 이름을 본떠서 “무사시마루”라는 선수명을 가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체격이 좋았다. 부모는 사모아섬에서 하와이로 이민했고, 생활고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 17 살 때 미식 축구로 단련한 그 매머드와도 같은 몸이 주목을 받아, 또 권유를 받았고,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일본행을 결심했다. “갑자기 일본에 갈 일이 생겼어요.”라고 부모님께 보고한 후 그는 하와이를 떠났다.

일본에서는 자신의 몸이 너무 커서 난처했다. “몸이 너무 커서 옷을 사러 가게에 가면 제 사이즈의 옷은 없다고 그래요. 또 베개의 크기도 작아서 처음에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목이 아팠어요. 버스를 탈 때에도 몸에 비해 차량이 작아 못 내릴 때도 한 두번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더듬거리는 일본어였지만 착실하게 배웠습니다. 기왕 내친 걸음이었고, 또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결심으로 일본에 왔으니깐, 오기로라도 포기할 수 없어요. 남 부럽지 않는 체격에 연습으로 얻은 기술을 합치면, 그야말로 “날개 단 호랑이”잖아요. 그래서 데뷔를 앞두고 “시간은 금”이라고, 저는 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조건 열심히 연습만 해 왔어요. 도장에서 해야 하는 연습외에도 턱걸이, 줄넘기, 물구나무서기 등 스스로 매일의 운동량을 정하고, 연습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해서 승산이 없어 보여도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끝까지 매달렸지요. 다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동네 아주머니들과 “어디 가세요?”, “네, 어디 좀 가요.” 식의 인사를 나누고 교류할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지요.”

도입한 후 파죽지세로 이겨온 무사시마루는 1999 년 스모선수의 최상등급인 요코즈나(横綱)등급의 한을 풀었다. 2004 년에 현역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는 일본인들 가운데에서 아직 인기가 높다. 요코즈나가 된 후에도 “이긴 뒤에도 방심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알아보거나 거만하게 굴지 않고, 그 지위에 안주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지지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

- ①武蔵丸はハワイ時代にアメフトで体を鍛えた。○
- ②武蔵丸が日本で困ったのはあらゆるものが自分にとって小さすぎるからだ。×
- ③武蔵丸は何が何でもやらねばならぬという気にさせた一つの理由は意地である。×
- ④武蔵丸は部屋でのけいこ以外に自主的に懸垂、縄跳び、腕立て伏せをこなした。×
- ⑤武蔵丸が入門から横綱になるまでかかった期間は約 8 年である。×

問題9 以下の文章を読み、下の質問に○か×でこたえなさい。

武士道

“무사”라는 계급이 천황을 대신하여 사실상 일본을 다스리기 시작한 것은 가마쿠라시대, 즉 12세기 말이다. 우연히 고려시대 최 씨 무신정권과 때를 같이 하는데, 일본에서는 장군이 나라를 다스린 시대가 약 700년 계속되었다.

원래는 무장농민에 불과했던 무사들도 그 무력을 공격의 목적에서 싸움을 막는 수단으로 바꾸었고, 동시에 점점 통치자로서의 도덕이 요구되어, “무사도”라는 개념이 확립되었다. 소위 “무사도”는 신도의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색즉시공 공즉시색 (色即是空 空即是色)”이란 선종의 무상함과 “인,의,예,지” 등 유교의 도덕개념을 접목한 것이다. 그것은 신라시대의 “화랑 (花郎)” 즉 귀족들이 “유불도 (儒佛道) 삼교”를 합쳐서 “화랑도”를 만든 것과 비슷하다. 또는 한국에서 “사서오경 (四書五經)”을 읽고 과거를 보았던 양반과 “대장경 (大藏經)”을 배운 승려의 역할을 무장농민들이 했다고 하면 더 구체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에도시대에 서술된 무사들의 “성경”으로 여겨졌던 “하가쿠레 (葉隠)”에는 “무사도란 삶보다 죽음을 택하는 것”이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은 무사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죽음에 처했을 경우 그것을 아무 가치도 없는 “개죽음”이라 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은 도량이 작은 사람이 하는 행위이며, 또 수치스럽고, 세상에 대해 부끄럽다는 뜻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고, 또 선종의 영향으로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평정을 잃지 않고 깨끗이 운명을 받아들여야 하는 무사들은 한국인의 눈에는 어쩌면 잔혹하게 보이는 “할복자살”을 택했다. 무사들은 타인에게는 본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마음 속에 담아 두는 것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터무니없는 의심을 받았을 경우에도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일편단심 (一片丹心) 을 보여 주는 것이 무사의 자신감이며 귀감이었다.

- ①日本で武士が政権を取ったのと、高麗で武臣が政権を取ったのはほぼ同時期だ。○
- ②武士道は儒教、仏教、道教の影響を受けているといえる。×
- ③韓国では昔、両班たちが大藏經を読んだ。×
- ④「武士道とは死ぬことと見つけたり」という思想には禅と儒教の影響がある。○
- ⑤切腹によって潔白を示すことが武士の鑑であるとされた。○